

<b>타이틀</b>	01. 이루리, 영어 안내문을 만들다.
<b>배 경</b>	A외식 프랜차이즈 총무회계부
<b>등장인물</b>	이루리: 20대 여,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카운터 업무 및 총무 업무 담당인 막내 매니저 Mr. Robert
<b>시놉시스</b>	

외국에서 새로운 셰프가 온다. 셰프는 새로운 메뉴와 조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회계부에 설명회를 준비하고 안내문을 게시하라며 설명회 목차가 적힌 영어 발표문서를 준다. 상사는 그 문서를 이루리에게 주며 영어와 한글로 설명회 안내문을 만들어 붙이라고 지시한다.

이루리는 영어로만 되어 있는 발표문서를 보고 기가 죽지만 맨 앞에 나온 목차를 보며 설명회 내용을 한글로 먼저 정리한 후, 영어로도 똑같이 만든다.

시간과 장소를 넣어 안내문을 큼직큼직한 글씨로 완성한 이루리는 프린트하여 직원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다.

셰프가 지나가다가 안내문을 보며 어디어디에 붙였냐고 묻고 이루리는 직원들이 쉬는 곳과 공지 게시판에 붙였다고 보고한다.

설명회 당일, 회의실에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과를 놓고 의자를 배치하던 이루리는 직원들이 준비한 환영선물을 놓으며 환영의 메시지를 적은 카드를 같이 올려놓는다.

## 대 본

**#1 타이틀 : 01. 이루리, 영어 안내문을 만들다.**

### #2 식당 입구

호텔 레스토랑 분위기의 이탈리안 풍 식당 입구에서 떠나는 손님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이루리. 재료준비 시간 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매니저 이루리씨. 게시판에 내일 공지문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루리 네. 무슨 공지할 내용이 있으세요?

매니저 총괄 셰프님 새로 오셨으니 정식으로 인사해야죠.

루리 로버트씨요? 드디어 나오시는 거예요?

매니저 다음 주에 날 잡아서 전직원 있는 자리에서 인사하기로 했어요. 원래 사장님은 제대로 취임식처럼 하고 싶어하셨는데, 로버트씨가 절대 싫으시다고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비전공유하고 그 정도만 하하기로 했어요.

루리 아~ 언제요?

매니저 아직 몰라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중이세요. 곧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로버트씨가 나오시면 이루리씨가 언제 하실지 날짜랑 시간 좀 물어봐서 공지문으로 올려 주세요. 휴게실 게시판이랑 단체 대화방이랑 다요.

루리 (놀라서) 제가요? 제가 어떻게 물어봐요?

매니저 처음 뵈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보니 대답 잘 하시던데요 뭐. 제가 이번 주 공지 담당이 이루리씨라고 미리 말해줬으니까 그냥 날짜랑 시간만 잘 알아들으시면 될 거예요.

루리 네...

### #3 식당

로버트가 서류를 들고 들어와 이루리를 찾아 두리번거린다. 이루리가 로버트를 보고 올게 왔다는 심정에 혹 숨을 들이키는데 먼저 이루리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오는 로버트

Chef (손 들며 반갑게) Hi, you must be Ruri, right? I am the new Chef Robert.

*당황한 루리 얼굴에서 화면 멈추고, 속생각*

루리 하이?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똑같이 하이 하고 손 흔들어도 되는 건가? 그래야 하는 건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루리 Hi! (허리 굽혀 공손히 인사하고 상냥하게) May I help you?

Chef Yes, that would be great. Can you set up the first staff meeting on this Friday at 9:00?

상냥한 얼굴로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루리얼굴에서 화면 멈추고, 속 생각

루리 프라이데이, 9시? 맞나? 잘들은건가? 다시 말해 달라고 할까? 어떻게 확인하지? (메모지 생각나서)아, 그래!

루리 (메모지에 날짜와 시간을 손으로 적어 확인시킨다.) Is this right?

Chef (메모지 확인하고) Certainly.

루리 OK. I'll let the staff know tomorrow.

Chef Thank you.

잠시 후, 데스크 앞에서 외출 후 돌아온 매니저가 메모를 보고 있다.

매니저 로버트씨가 이렇게 확인하셨다는 거죠?

루리 네. 이렇게 공지 올릴까요?

매니저 잠깐만요. (데스크에 놓여있던 서류들 중에서 ppt문서 하나 찾아서 꺼내며) 이것도 같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루리 (어리둥절) 이 문서는 뭐예요?

매니저 로버트씨가 자기 소개할 때 빔프로젝터로 틀려고 준비하신 문서래요.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오셨나 봐요.

루리 아~ 그럼 이걸 파일로 공유할까요?

매니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목차 정도만 미리 공유하면 될 거 같아요.

루리 네.

매니저 그리고 그날 작게라도 환영식을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루리씨가 일찍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루리 네. 음... 환영문구 같은 거 준비해 와서 붙이고 그래야 할까요?

매니저 요란한 거 싫어하신대요. 간단한 선물이라 꽃다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 우리 스태프들이 환영카드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되겠네요. 우리 스태프 이름도 알려드릴 수 있고.

루리 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PPT문서 보이며) 로버트씨도 이렇게 인사를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매니저 좋아요. 카드는 내일 제가 사와서 모두에게 나눠주고, 환영식 전까지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면 되겠죠?

루리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 #4 사무실

PC에서 공고문 작업중인 이루리. 로버트가 준 영문 ppt를 보고 있다.

루리 이게 로버트씨가 발표할 내용이구나. 일부러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넣으시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네. 그래, 공지도 로버트씨가 알 수 있게 영어랑 같이 만들어야겠다.

화면에 루리가 만든 공지 나온다. 로버트가 중 메모와 자료와 비교하면서 내용 확인하는 이루리

루리 틀린 건 없겠지? 날짜, 시간, 내용...

### #5 조리실 등 레스토랑 내실, 다음 날 아침

조리실 문이나 게시판 등에 공지문 붙이고 있는 이루리. 옆에는 다른 곳에 붙이기 위한 공지문 여러 장이 놓여져 있다. 뒤로 로버트가 나타난다.

Chef Wow, Here's this notice!  
루리 (놀라서 돌아보며) Good morning!  
Chef Good morning! (공지문 여러 장 놓인 것 들어올리며) Can I read this?  
루리 Sure!  
Chef It's a friendly notice!

눈 커지는 루리 얼굴에서 화면 멈추고, 속생각

루리 칭찬인가? 아닌가? 칭찬이면 고맙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예의 바른 거지?

루리 (약간 망설이다가) Thank you.  
Chef (몇 장 더 남은 공지문 보며) Are there boards in several places?  
루리 In the locker-room and in the break room.  
Chef OK I expect to talk to all. (간다.)

로버트가 사라지자 긴장이 풀리며 벽에 기대는 이루리

루리 나 제대로 대답한 거 맞지?

### #6 아침, 식당 입구

전체 회의 당일, 이루리가 회의가 열릴 장소를 정돈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쇼핑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루리 오셨어요, 매니저님!  
매니저 네. 무슨 문제 없죠?  
루리 네. (카드 보여주며)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제 환영 카드요, 어제 밤에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서 쓰긴 했는데...  
매니저 (루리 카드 열어보며) 어디 봐요.  
루리 (불안하게) 이상한가요? 너무 짧을까요? 다른 분들은 다 잘 쓰셨죠?  
매니저 루리씨도 잘 썼어요~ 다른 사람들 것도 한번 보실래요?  
루리 네! 그래도 된다면요...  
매니저 (카드를 모아놓은 상자나 봉투 주며) 자, 잠깐 구경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테이블에 예쁘게 올려 놓으시고요.  
루리 네!

매니저 가면 테이블 위에 상자 올려 놓고 다른 사람들 카드 보는 이루리. 카드 보는 루리 모습 아래로 다양한 표현들이 지나간다.

루리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아무튼, 나만 이상해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대로 내자.

정성스럽게 테이블에 박스 올려놓는 이루리 모습